에두와도 아얄라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에두와도 아얄라는 대관장단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과의 3월 29일자 접견이 그와 아내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힝클리 부대관장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님이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몹시 놀랐다.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교회 교육 기구의 지역 책임자인 아얄라 장로는 21년전 침례받은 이래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으로부터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는 것을 생활화 해왔다. 그는 새로운 부름을 받아들였다. 잠시 후,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그가 지게 될 영적인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3월 31일 일반 총회 오후 모임에서 다른 아홉 사람들과 함께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았다.

그 후에 아얄라 가족은 세 자녀와 함께 새로운 부름의 기쁨을 나누었다. 직업이 사진사인 장남 패트리시오 에두와도는 산티아고에서 감독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그 다음날 와드에 그 소식을 무척 전하고 싶어했다. 딸 비비안 에스터는 컴퓨터 전문가인 남편의 직장 관계로 일본에 살고있다. 둘째 아들 리카르도 안토니오는 솔트레이크의 유타 대학교에서 컴퓨터학을 전공하고 있다.

현재 52세인 에두와도 아얄라 장로는 1937년 5월 3일 칠레의 코로넬에서 마그도니오 아얄라와 마리아 아부토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9년 2월 7일 칠레의 린코나다 데 라자에서 원주민인 브랑카 에스터 에스피노자와 결혼했다.

아얄라 장로는 아내의 인내심과 지지 때문에 침례받고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1969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그들을 방문했다. 에스터는 곧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있었으나 에두와도는 처음엔 선교사들의 메시지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끈기있게 기다렸으며 토론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어서야 그도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으며 함께 침례 날짜를 정했다. 에두와도와 에스터 그리고 패트리시오는 1969년 6월 21일에 침례받았다. 비비안과 리카르도는 후에 8살이 되었을 때 침례받았다.

"아얄라 자매는 저의 건축가였습니다."라고 아얄라 장로는 말한다. "아내의 도움으로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찾도록 도와준 것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주님께 봉사함으로써 그의 인격을 형성하게 해 준 공훈까지 아내에게 돌린다. 그는 교회에서의 봉사 기간 중 총관리 역원에 의해 주어진 도전들 역시 그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유념한다. 그는 항상 그러한 도전들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했으며 그 결과로 더욱 발전해왔다.

코로넬의 광업 회사를 위한 발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여준 에두와도 아얄라의 탁월한 능력은 그를 1970년대 초 산티아고에서 가장 큰 3대 기업의 입안자로서의 위치에 오르게 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가 그를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른 것은 1974년 산티아고에서였으며, 같은 날 교회 교육 기구에서 일해달라는 초청장이 그에게 전달되었다. 그 이후 아얄라 장로는 다시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지역 대표로서, 성전 인봉자로서, 선교부장(우루과이)으로서, 다시 지역 대표로서의 부름을 계속 받아들였다.

아얄라 자매는 남편이 스스로를 유능한 지도자와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타고난 자질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과 대화를 잘 나누며 그들이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남편은 사람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돕는 것을 무척 좋아하며, 봉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상관하지 않습니다."라고 아얄라 자매는 말한다.

아얄라 장로는 아내의 충실한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그의 새로운 부름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주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주님이 저의 안내자이시며, 아내가 저를 도와줄 것이므로 저는 이 부름을 대하는 데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그의 느긋하고 낙천적인 태도를 대할 때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을 느낀다.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는 그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짧은 소매의 셔츠를 입는 것을 더 좋아하는" 강렬하고 활력있는 사람이다. 특히 그가 교회에 대해 얘기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때의 그의 태도는 결코 느긋한 것이 아니다.

커티스 장로의 인생에서 교회는 항상 특별한 역할을 해 왔다. 1924년 5월 27일 알렉산더와 제네비에브 래인 커티스 사이에서 교회 활동이 일상화된 가족의 한 명으로 태어났다. 솔트레이크의 슈거 하우스 지역에 있던 그 가정에게는 가정의 밤, 가족 기도 및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일상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저는 아주 활동적인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교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저는 그것에 결코 의문을 품어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일찌기 커티스 장로는 봉사하라는 부름을 결코 거절하지 않을 것과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할 것을 결심했다. 그의 첫번째 봉사는 치과 대학에 다니는 동안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이 봉사는 후에 감독으로서,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지역 대표(두 번)로서, 본부 청남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본부 멜기세덱 신권 위원회의 일원으로서의 봉사로 계속 이어졌다. 가장 최근에는 스테이크 축복사와 성전 인봉자로 봉사했는데, 그는 이 두 부름이 사람과 영을 모두 다루는 것이었으므로 그 두 부름에 무척 애착을 가졌다.

12년전 플로리다 탈라해시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이 주어졌을 때, 커티스 장로는 한창 잘 되던 치열 교정 일을 포기했다. 현재 65세인 그는 "저는 다시 선교 사업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미소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부름으로 인해 저는 지극히 겸손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매우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커티스 장로에게 복음과 복음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보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의 아내 패트리시아 글래이드 커티스에 관해서이다. 두 사람은 솔트레이크의 어빙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되었다. 그들의 우정은 고등 학교 때도 계속 되었으며, 유타 대학교 일학년 때에 첫 데이트를 했다. "우리는 무도회에 갔었는데 그 순간이 지금까지도 가장 멋진 순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커티스 장로의 선교 사업을 막았다. 그는 치의대 학생이었으며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패트리시아를 떠나 있었다. 마침내 1944년 6월 1일 두 사람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그때부터 그녀는 그와 동행하였다.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 텍사스의 코푸스크리스티, 버지니아의 노포크 등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찾아 봉사했다.

군대가 치의학 연구 프로그램을 중단하자 그는 제대를 한 후 학업을 계속했다. 1946년 치의대를 졸업한 후 그는 해군에서 대위 계급을 달고 치의사로서 남은 군무를 마쳤다.

커티스 부부의 가정 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알아왔던 생활의 연장이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를 계속하며, 결코 희생이라고 여겨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름가운데서 서로를 지지해 주는 그런 생활이었다. 커티스 부부는 리차드, 글래이드, 리그랜드 2세, 캔디(메렐), 테리(엘드리지), 시드니(린슬리), 브렌트 그리고 레베카(티민스), 이렇게 여덟 자녀를 두는 축복을 받았다. 모두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끝으로 두 자녀는 아버지에 의해서 인봉받았다.

커티스 장로는 이 새로운 부름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줄까? 커티스 자매는 이렇게 응답한다. "그는 복음에 대해 매우 열의를 갖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의 생활이 향상되며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또 그는 조직을 위한 탁월한 안목을 갖고 있어요."

커티스 장로는 새로운 부름에 대해 단지 이렇게 말한다. "제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클린튼 엘 커틀러 장로

칠십인 정원회

클린튼 엘 커틀러는 청남 시절에 조상들과 교제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조상들의 일지를 통해 복음에 대한 그들의 헌신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통찰력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저는 그분들이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신 복음에 충실해지기를 원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커틀러 장로는 선조들의 모범에 따라 평생을 바쳐 주님께 봉사했다. 여러 부름가운데서 감독과 지역 대표 그리고 두 번의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했다.

복음에 대한 그의 사랑은 아주 어린 시절까지 더듬어 올라간다. "저에게는 아주 훌륭한 초등협회 교사가 있었으며, 또 강력한 조언자들과 훌륭한 감독님도 계셨습니다."

경전 역시 그의 생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어머니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전집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그것을 읽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들의 생애를 통해 저는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몰몬경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다. "몰몬경은 우리 시대를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실제로 몰몬경은 커틀러 장로가 워싱턴 주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할때 그의 선교 사업의 구심점이었다. 몰몬들이 정말 기독교인이냐는 질문을 받았을때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 질문한 사람이 그와 함께 니파이삼서부터 읽도록 권유했다. "그 후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십시오.'"

클린튼 엘 커틀러는 1929년 12월 27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벤자민 루이스 커틀러와 넬리 에이치 샤프 사이의 열 자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청남 시절에 커틀러 장로는 농구에 열중했었다. 고등학교 때는 주 대표 선수였으며 유타 주립 대학교 일학년 때에는 학년 대표로 뛰었다. 후에 그는 교회의 여러 농구팀에서 코치 노릇을 했다.

1948년 9월 18일 커틀러 장로는 카마닐슨 커틀러와 결혼했다. "아내는 우리 가정의 중심이며 참으로 헌신적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커틀러 자매는 이렇게 찬사를 되돌려 준다. "남편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는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커틀러 장로와 자매는 여섯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 결혼했다. 그들은 코니(쥬크), 캐시(페터슨), 폴린톤 리드, 클라크 닐슨, 캐롤리(라이트), 그리고 찰스 루이스다.

커틀러 장로는 마운틴 벨 전화 회사에서 32년 이상을 일했다. 1986년 은퇴 당시 그는 마케팅 경영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은퇴 후 약 한 달 만에 그는 현재까지 봉사해왔던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들은 마치 우리 자녀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염려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할 때 우리도 행복했으며, 그들이 슬플 때는 우리도 슬펐습니다. 우리 가족에 500명 내지 600명의 자녀들이 더 늘어났었습니다."

커틀러 장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선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부름을 수행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신앙이 강하고 충실하며 순종적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제 마음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안아 주며, 그들을 가르치고 사랑해 주며, 마침내 그들의 간증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일은 즐겁습니다. 그들은 귀환할 때 떠나고 싶지 않아서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며 우리 모두 그분처럼 되고자 노력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커틀러 장로는 원예를 즐기지만 그의 가장 큰 취미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다. "저는 일전에 15살 된 손자와 농구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 6피트 4인치인데 60살인 할아버지를 격파해 버렸지요. 그러나 재미있었습니다."라고 커틀러 장로는 말한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가 유타의 드래퍼에 있는 집에 있을 때면 일요일 오후 5시는 항상 가족 식사 시간입니다. 올 수 있는 가족은 누구나 참석합니다."

커틀러 장로는 겸손하게, 그러나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열의를 가지고 새로운 부름을 받아들인다. "저는 복음이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로버트 켄트 델린바흐 장로

칠십인 정원회

덴버에서 로버트 켄트 델린바흐 장로가 헌 물품 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없는 사람들이 알루미늄 깡통들을 수집하는 것을 돕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드믄 일이 아니다. 또한 그가 소련의 첨단 기술 계획 분야에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도와 주는 것을 보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드문 일은 델린바흐 장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웃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는 진지하게 말한다. "사람들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52살의 델린바흐 장로는 그의 기억이 닿는 한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다양성을 대하는 것을 즐겨왔다. 그는 1937년 5월 10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프랭크와 리오나 칸샤프터 델린바흐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유타주 크린톤에서 자랐다. "저는 농장에서 성장했으며 여러 계층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사업가도 있었으며 농부도 있었고 가을 수확을 위하여 온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했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개성과 우리들 사이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델린바흐 장로의 그러한 태도는 복음에 대한 생각에도 반영되어 있다. "복음은 평화와 확신을 줍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위안을 줍니다. 모든 사람은 구세주의 대속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델린바흐 장로와 그의 아내 메리 제인 브라드벤트 델린바흐 자매는 생활에서 언제나 복음을 우선 순위로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1962년 8월 17일에 맨타이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27살의 롭과 25살 난 데이비드, 그리고 17살인 댄, 세 아들을 두었다.

"가족 기도는 우리 가족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그것이 우리 가족 생활의 가장 확고한 힘이 됩니다."라고 델린바흐 자매는 말한다.

델린바흐 장로는 집안이나 정원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집안 일을 하는 것이 가족 기도만큼이나 가족을 하나로 뭉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인다. 그들은 함께 낚시와 스키 그리고 수영을 즐긴다. "또 메리제인(전직 교사)이 집안에 음악과 책을 두라고 강조한 말씀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델린바흐 가족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곳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델린바흐 장로는 서독의 선교부에서 30개월을 봉사하고 귀환하여 유타 대학교에서 국제 관계학 학위를 받았으며 그 다음에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들은 이 모든 기간 동안 계속 함께 있었다.

델린바흐 가족은 델린바흐 장로가 경영자로서 또는 지방 대학교의 총장과 부총장으로 근무했던 페어뱅크스와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 살았다. 또 그들은 델린바흐 장로가 일했던 솔크 신학 연구원이 있는 남 캘리포니아에서도 살았으며 델린바흐 장로가 관계한 소련의 과학 연구소와 대행 기관을 돕는 회사가 있던 워싱턴 디시에서도 살았고, 델린바흐 부부가 선교부장으로서 봉사했던 뒤셀도르프 선교부와 뮌헨 선교부가 있던 독일에서도 살았다.

델린바흐 장로는 감독, 스테이크 부장, 주일학교 회장, 청남 고문 등 많은 교회 부름을 수행했지만 특별히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던 시간을 더욱 사랑한다. "선교부에서는 아주 흥미있는 일을 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교회의 젊은이들과 헌신적인 부부 그리고 새로운 개종자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인다. "실제로 우린 더 많은 선교사들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모두 다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부부들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의 빛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세계 어디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속으로 발을 들여 놓고 빛을 나눌 준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6년간 델린바흐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살면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회사인 아메리칸 시너지 회사의 사장으로서 일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일해오는 동안 이 생에는 선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선한 것들을 계속해서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델린바흐 장로는 말한다. *

해롤드 지 힐램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해롤드 지 힐램에게 신앙의 시험은 어린 시절에 찾아왔다. 그가 열 한 살이었을 때 그의 부친은 두개골 종양으로 매우 건강이 나빠졌다. "그 시절에는 의학적인 진단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부친께서는 편찮으셔서 수개월 동안 집에 계시지 못했습니다."라고 힐램 장로는 말한다.

그의 모친이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머무는 동안 그는 두 명의 누이와 함께 아이다호에 있는 집에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일했다. "그때는 매우 어렵고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시기도 이때였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안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열 한 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몇 가지 실현 가능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부친은 기적적으로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후에 아이다호주 세인트 안토니 시의 치안 판사가 되었다. 그것은 가족이 보기에 기적이었고 해롤드 역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었다.

해롤드 지 힐램은 아이다호주 슈가 시티에서 1934년 9월 1일 고든 힐램과 이브린 스키드모어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세인트 안토니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릭스 대학에 다녔다.

해롤드는 선교사 부름을 받기 전 여름 옐로우스톤 공원 근처에서 낚시 안내원으로 일했다. 그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인 캐롤 라스무센을 만난 곳은 바로 그곳 성찬식 모임에서였다. 캐롤도 여름 방학 동안 그 공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해롤드가 브라질에서 선교사로서 봉사한 이 년 반 동안 그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가 귀환한 지 일 년 후인 1958년 6월 5일, 그들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힐램 부부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 다녔다. 힐램 자매는 교육과 음악 부문에서 학위를 받았고(그녀는 재능이 많은 피아노 연주자이다.) 힐램 장로는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치과 대학에 들어갔다. 힐램 형제가 공부하는 동안 힐램 자매는 국민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다. 힐램 장로는 졸업 후 아이다호주에 있는 아이다호 폴스에서 병원 개업을 했다. 2년 후 그는 다시 노스웨스턴 대학교로 돌아와 치열 교정학 과정을 이수했다. 그는 우등으로 학위를 받았다. 그후 힐램 가족은 아이다호 폴스로 돌아와 그곳에서 다시 개업을 했다.

힐램 장로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기 전 감독 직책을 맡아 봉사했으며 아이다호 폴스의 아이다호 남 스테이크 부장단에서도 봉사했다. 티톤 댐 재앙시 그는 교회의 모든 자원 봉사자들을 지도했으며 지역의 복지 사업 지도자로서 봉사했다.

1941년, 힐램 장로는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다. 부모가 포르투갈 선교부로 임명을 받았을 때 큰 딸 린다는 이미 포르투갈의 리스본 선교부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 훈련원에서 연수 중이었다. 힐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딸에게 전보를 보내면서 아래에 '선교부장'이라고 서명했습니다."

그들의 큰 아들 로드니도 같은 시기에 네덜란드로 선교 사업을 떠났고, 세째 아이 보니도 후에 포르투갈 선교부로 부름받았다. 힐램 자매는 말하기를 "그 3년 동안 우리 가족 중 다섯 명이 선교사로서 봉사했습니다." 더 어린 자녀인 글렌, 마크, 라이안, 그리고

대회의 진행 과정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텔레비전으로 방영되고 중계되었음

케네스 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자레드는 포르투갈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1985년, 힐램 가족은 아이다호 폴스로 돌아왔고 세번째 개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 힐램 장로는 아이다호와 포르투갈의 양 지역의 지역 대표로서 봉사했다. 그는 또한 보이 스카웃 티톤 피크 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했으며 보이 스카웃의 실버 비버 상을 수상했다.

직업적인 경력으로서 힐램 장로는 아이다호 폴스 치과 협회 회장으로, 아이다호 주 치열 교정 협회 회장 및 록키 마운틴 치열 교정 협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힐램 부부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가정의 밤 활동 결과로서 한 색다른 취미를 갖게 되었다. 힐램 자매는 "제일 큰 아들은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크 부장으로서의 아빠의 일정상 그것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정에 맞추어 저희 둘과 충분히 나이가 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쿠버 강사를 찾은 후 함께 멋있는 다이빙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힐램 부부는 일곱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하여 그들의 선교 사업 비용과 학비를 버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다호 폴스에 18,000 평이나 되는 농장을 샀다. 그들은 집 주위의 농장에 옥수수를 심고 가꾸어 파는 일을 하며 자녀가 고등학교때 일을 하다 선교사로 집을 떠나거나 결혼을 하여 떠나게 되면 어린 동생들에게 물려 주게 하는 지속적인 사업을 벌였다.

힐램 장로는 젊은이들에게 선교사로서 봉사할 것을 힘주어 권고한다. "그들이 그렇게 많이 배울 수 있고 이웃을 위해 그렇게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이 곳 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것 가운데 두 가지는 축구와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 축구와 음악은 새로운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받은 영국 노리치 출신의 케네스 존슨 장로의 인생에서도 큰 역할을 해 왔다.

1940년 7월 5일, 노리치에서 버어티 존슨과 아다 존슨 사이에서 태어난 케네스는 축구선수로서 시 리그전에 출전했으며, 노래하는 그룹에서 기타를 연주했다. 그러나 그가 1959년 4월에 무도회에서 만난 그의 아내 파멜라 윌슨에 대해 얘기할 때에는 이러한 취미도 빛을 잃고 만다. "춤을 추는 동안 파멜라는 제가 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결코 진지한 관심을 두지 않을거라고 말했습니다."라고 그는 그때를 회상한다. "전에는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간에 선함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팜에게서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특징인 솔직한 유우머로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한다. "저는 그 당시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녀는 저를 점점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 및 활동과 복음 토론에 참여하도록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제가 '점점'이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교회에 대하여 처음 들은지 4개월만인 8월 16일 침례를 받았습니다. 파멜라는 바로 스테이크 선교사였습니다!"

존슨 장로는 그가 복음에 관해 영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몇 명의 매우 훌륭한 사람들, 특히 그의 부모와 아내 및 선교사 훈련원의 어느 건물 관리자 덕분이라고 말한다.

"먼저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양육하셨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저의 아버님은 매우 겸손하고도 지성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감리 교회의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셨으나 그분의 종교는 일반 교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태리 전쟁에서 돌아가셨는 데, 가족 모두 '아빠가 집에 오실거야!'라고 말하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것이 무얼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매우 친밀한 가운데 자랐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그녀의 부모님에게서 두번째로 큰 영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라고 존슨 장로는 계속 말한다. "파멜라는 우리가 처음 만난 때부터 복음의 미덕을 발휘해 왔습니다. 아내는 남을 생각해 주는 동정심이 매우 큽니다. 남을 보살피는 일, 즉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귀기울여 주고, 젊은 여성들과 함께 창의적인 수업을 훌륭히 받는 것 등은 그녀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또 파멜라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운동과 음악 때문에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파멜라와 복음으로 인해 잠재력을 일으켜 주는 큰 의욕을 얻고 노리치 시립 대학과 런던 인쇄 학원을 졸업했다. 26년 전 그때 그는 인쇄업을 떠나서 한 동업자와 함께 보험 중개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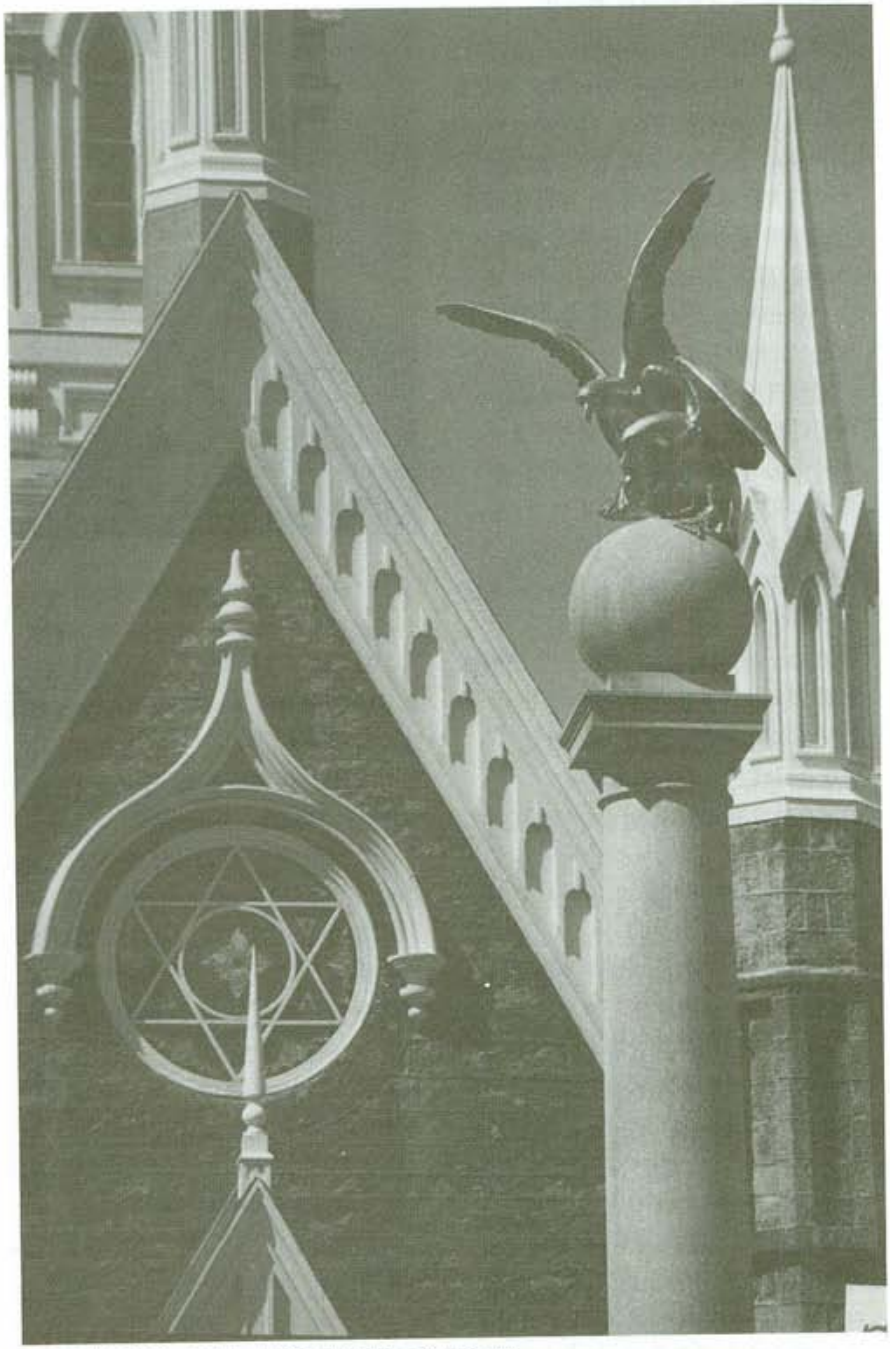
시작했다.

그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존슨 장로는 그들이 동등하게 봉사의 멍에를 맸음을 알려주는 훌륭한 유대 관계 뿐만 아니라 그의 익살스러운 성품도 보여준다. "우리가 방문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좋은 일이지요."라고 그는 크게 미소지으며 말한다. "방문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항상 내가 한입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왜냐하면 아내는 음식을 요리하여 대부분 문 밖으로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요." 존슨 장로는 집 주변에서 매우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항상 파멜라와 함께 사무실과 가정에서 협력하며 일한다.

존슨 장로에 의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세번째로 큰 영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그들이 결혼한 직후 그들 지역에서 봉사한 선교사 훈련원의 건물 관리자였다. "제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었을 때, 월트 스튜어트 형제님이 저를 가르쳤고 그의 아내는 파멜라에게 훌륭한 교수법을 가르쳤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월트 형제님은 선한 행동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진실로 믿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견해를 갖게 되었고 그 점에 대해 저는 월트 형제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존슨 장로는 지부장단 및 지방 부장단으로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1978년 노리치 스테이크가 조직된 후 그는 지역 대표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10년 동안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다.

1962년에 존슨 장로가 결혼한 지 4년 후 아들 케빈이 태어났다. 아기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시달렸다. 아기는 3년 동안 존슨 자매의 꾸준한 간호를 받아야 했다. 신권의 축복과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케빈은 건강한 몸으로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23세의 나이로 스테이크 선교부장단 보좌로서 봉사하고 있다. 존슨 장로는 좋아하는 찬송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이 하늘에서 보내 주시는 이슬 방울이 제 아들에게 내려와 그를 지켜만 주신다면 저는 주님의 사랑의 사업을 성취시키는 데 제 생애를 바칠 것을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템플 스퀘어에 있는 갈매기 기념비와 어셈블리 홀의 세부 장식

헬베시오 마틴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1972년 4월의 맑은 어느 날 밤,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교통 혼잡으로 자동차가 꽉 막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동안 헬베시오 마틴스는 그의 가족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와 아내 루다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정 교육을 받았으므로 여러 종교들을 검토해 보았으나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영적인 공허감을 채워줄 것 같지가 않았다. "저는 그날 밤 도움을 청하며 주님과 대화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여러 날 밤이 지난 후 그들 가정에 선교사들이 방문하였다. 루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사들은 모두 여섯 가지 주제로 된 토론 내용을 요약하며 가르쳤고 매우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토론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 가족은 1972년 7월 2일 침례받았다. 마틴스 장로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 가족이 신권의 축복을 직접 누릴 수 없다는 사실과 헬베시오나 루다 모두 예기치 못한 상황 조차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헬베시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이 우리에게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말해 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스 형제는 침례받은 지 2주 후부터 와드의 복음 교리반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루다는 초등협회 회장단에서 일했다. 1974년 그는 북 브라질 지역의 공보 위원회 책임자로 부름받았다. 1975년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상파울로 성전 건축을 공표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지만 다른 회원들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 일했습니다."라고 마틴스 장로는 기억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집이었습니다." 마틴스 자매는 기금 조성을 돕기 위해 보석을 팔았고 마틴스 형제는 성전 헌납을 위해 공보 위원으로 봉사했다.

1977년 3월 정초식에서 킴볼 대관장님이 "제 팔을 잡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형제님, 형제님께 필요한 것은 충실함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틴스 장로는 회상한다. 이 권고는 그가 이미 세운 훌륭한 결심, 즉 그들의 아들 마커스를 위해 선교사 기금을 설정해 놓은 신앙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1973년에 아들이 받은 축복문에는 그가 장차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쓰여있었다. 마틴스 장로는 또 그와 루다가 미래의 성전 부지를 방문하던 어느 날 "우리는 영에 압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라고 회상한다.

1978년 6월 9일, 그들 부부는 모든 합당한 남자 회원들은 신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킴볼 대관장님의 계시를 접했다. 즉시 그들은 이 예기치 못한 놀라운 축복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상파울로 성전이 처음으로 열렸을 때 마틴스 가족은 가족 인봉을 받았고 마커스는 선교사로 봉사했다.

헬베시오 마틴스는 1930년 7월 27일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호노리오와 베네딕타 마틴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열 두 살에 학교를 떠나 일곱 명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운 것은 제 인생의 소중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가 1956년 12월 7일 루다 투린호드 아시스와 결혼한 후 루다는 그를 격려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도록 하였고 회계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게 하였으며 재정, 기업 경영, 그리고 교육 분야에 관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게 하였다. 헬베시오는 후에 브라질에서 가장 큰 기업의 재무 운영 감사가 되었고 후에는 그 자회사의 재무 이사가 되었다. 그는 또한 리오데자네이로 주립 대학교의 조교수가 되었다.

마틴스 부부는 네 자녀를 두었는데, 31살인 마커스 헬베시오, 24살인 마리사 헬레나, 15살인 라파엘, 13살인 앨린과 세 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가족입니다."라는 루다는 말한다. "특히 남편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종종 몇 시간 동안이고 앉아서 '아빠, 이야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라고 조르는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곤 합니다.'

마틴스 장로는 두 스테이크 부장의 보좌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봉사하였고 1990년 6월까지 브라질의 포텔레자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칠십인으로 부름받음으로써 최초의 흑인 총관리 역원이 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루다와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이 부름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주님의 사업을 촉진시킨다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똑같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린 에이 미컬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린 에이 미컬슨 장로는 그의 생애에 영향을 준 중요한 경험과 교훈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수확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심어야 할 시기가 있고, 물을 대주고 자양분을 공급하여야 할 시기가 있으며 거두어들일 시기가 있습니다."

매우 어린 시절부터 미컬슨 장로는 그의 가족이 거주해 온 아이다호 폴스에 있는 농장에서 부친으로부터 가정 교육을 받았다. "저는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만* 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일을 멈춰서는 안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미컬슨 장로와 그의 가족은 여러 방면에서 축복을 받았다. 그들의 가정은 배움의 안식처로서 이곳에서 모두 아홉 자녀들이 검소한 생활과 가사일을 배웠고 원예술을 연마했으며 경전을 공부했다. 또한 특별히 그들의 가정은 궁핍한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우리 집엔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봉사의 즐거움에 합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 역시 우리 가족의 일부입니다."라고 지닌 미컬슨은 말한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일해왔으며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였고 우리의 가정을 공유했습니다."

미컬슨 장로의 교육은 34명의 학생이 8학년으로 나뉘어진 약간 붉은 색의 학교 건물에서 시작되었다. 아이다호 폴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럭스 대학을 나왔으며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농업 경제학을 전공하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아내 지닌 (앤더슨)이 1957년 중앙 아메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구혼할 당시에 대해 미컬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미래의 꿈을 나누었고 언젠가는 선교사로서 라틴 아메리카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약혼한 지 2주일만에(1960년 6월 17일 아이다호 폴스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그녀는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준비는 성과가 있었다. 미컬슨 부부는 콜롬비아 캘리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가 콜롬비아에 도착했을 때에 지닌은 통역자를 옆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씀 전체를 스페인어로 외웠습니다."라고 미컬슨 장로는 말한다.

미컬슨 장로는 선교 사업 이외에도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 그리고 지역 대표로서 봉사했다. 최근에 그는 와드에서 복음 교리반 교사로서 봉사해 왔고 아내와 함께 아이다호 폴스 성전에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의식 집행자로서 봉사해 왔다.

"제가 받은 모든 부름은 지에게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이 봉사할 때에는 자기가 가르치는대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이 유능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준비입니다."

미컬슨 부부의 자녀들인 마크, 던, 진 카렌, 카렌 데이비스, 린다 맥클란, 자네트 라이트하트, 마리린, 린 그리고 폴은 그들 부친의 모범과 가르침, 특히 경전의 가르침으로 인해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 "저희는 경전을 직접 읽습니다."라고 지닌은 말한다. "남편은 우리가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 자신의 생활과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우 쉬운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편은 경전을 사랑하며 그 가르침을 매우 좋아합니다."

미컬슨 장로는 아이다호주, 아이다호 폴스에서 1935년 7월 21일 로이드 피 미컬슨과 레바 윌모어 미컬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스테이크 부장과 선교부장을 포함하여 여러 지도자의 위치에서 봉사했다. 미컬슨 장로의 할아버님도 역시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봉사했다. "저의 아버님과 할아버님께선 제가 따라 온 훌륭한 모범이 되셨습니다."라고 미컬슨 장로는 말한다.

미컬슨 장로는 노래 부리기를 좋아하며 세상사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열렬한 독서가이다. "저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매일 책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봉사를 통해서 가장 큰 즐거움을 얻는다. "그것은 그분이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는 곳입니다."라고 지닌은 말한다. 미컬슨 장로는 그가 교회에서 받은 각각의 부름을 통하여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맡은 일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제가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제 마음속에 맨 먼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제이 밸라드 워시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워시번 장로는 어린 소년 시절, 그의 고향인 유타주 블랜딩에서 가진 간증 모임에서, 스테이크 축복사로부터 이 지역의 교회 회원은 이곳에서 가축만 기르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세상의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것이 아니라 레이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워시번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축복사의 말씀이 나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은 완전히 영으로 충만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소년이 성인으로 자라가는 동안 그 말씀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그의 마음에 울려왔으며 그는 레이맨 어린이들의 양부모가 되었고 마침내는 세 곳의 인디안 보호 지역 및 다른 한 지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아리조나 피닉스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게 되었다.

1929년 1월 18일에 태어난 제이 밸라드 워시번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에스 딜워스 영 장로가 관리하는 뉴 잉글랜드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선교사들에게 구세주를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경험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선교부장으로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워시번 장로는 어릴 때부터 구세주를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 "소년 시절, 어느 여름 날 저는 목장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이면 마을로 갈 수 없었으므로 저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해 여름에 저는 구세주를 알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또한 구세주께서 저를 아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때가 제 생에서 간증을 쌓게 해 준 또 다른 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십 남매 중의 한 명인 워시번 장로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부친이 돌아가셨다. "저의 어머니, 웨슬 블랙 워시번은 가족들을 데리고 유타주 프로보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가 브리감 영 대학교에 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대학에 입학시킨 후 자신도 학교에 다녀서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워시번 장로는 대학 일학년 때는 음악을 전공했었지만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 후, 1951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바바라 해리스와 결혼하고 전공을 의학으로 바꿔 의사가 되었다.

워시번 자매는 "우리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에 다니다가 브리감 영 대학교로 전학했어요."라고 설명한다.

워시번 장로는 유타 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친 후 아리조나주 페이지에서 가정 의사로 개업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저의 직업은 봉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직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봉사의 일부는 아기의 분만을 돕는 것이다.

워시번 부부는 아기들과 친하며, 슬하에 두 딸 케이(피어스)와 레베카(러더)와 마아크, 제이, 앤드루, 제임스, 리차드, 데이비드, 다니엘, 조셉 이렇게 열 자녀를 두고 있다. 막내 조셉은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그의 형들과 누나들도 모두 선교사로 봉사했다. 위로 다섯 자녀가 연달아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칠 년 만에 가족이 다 함께 모일 수 있었어요."라고 워시번 자매는 말한다.

친 자녀들 외에도 워시번 부부는 수 년 동안에 걸쳐 집에 열 두 명의 인디언 양자녀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중 몇 명은 단 몇 달 동안 또 몇 명은 오랫동안 함께 지냈다.

워시번 장로는 감독단 보좌, 스테이크 부장, 지역 대표 등의 교회 부름을 맡아 열심히 봉사했으며 또한 학교 이사회에서 이십 년 간 봉사했다. 그는 또한 음악을 즐겨 들으며 농구를 좋아한다.

활동적인 그의 생활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남편이 새로운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며 순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신권 지도자와 주님에게 순종합니다."라고 워시번 자매는 말한다. *

더럴 에이 울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따르신다면 결코 실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새로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받은 더럴 에이 울지 장로의 말이다.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울지 장로의 좌우명이 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남편이 계속해서 선교사들에게 주는 권고입니다."라고 그의 아내 라래 자매는 말한다. 울지 장로는 칠십인 정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을 당시 아리조나 템페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었다.

1926년 6월 12일에 유타주 에스칼랜트에서 태어난 울지 장로는 더블류 아덴 울지와 루비 리들 울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네 자녀 중 장남이다.

소년 시절에 가축과 농장을 돌보는 일을 도우면서 울지 장로는 열심히 일하는 방법과 책임을 완수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그것이 훗날 그의 성품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울지 장로는 열 여섯 살 때 가족과 함께 유타주 세다 시로 이사했으며 그곳에서 1944년 5월에 고등 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해군에 입대하였다. 그는 입대한 후 바로 2년간 태평양에서 일어난 대 전투에 참가했다.

"가미가제 비행기들이 우리의 배를 향해 정면으로 오는 것을 여러 번 보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비행기들이 모두 우리 배를 직접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의 힘, 즉 저와 가족들의 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울지 장로는 말한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울지 장로는 잠시 유타주 세다 시로 돌아왔다. 그는 고등 학교 시절 한 반 친구였던 라래 우드와의 우정을 새롭게 해서, 1946년 8월 3일에 둘은 세인트 죠지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제 생애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저의 영원한 반려자입니다."라고 울지 장로는 말한다.

울지 부부는 부루스, 게리(니엘슨), 제나(젭슨), 이렇게 세 자녀를 두었다. 울지 내외는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며, 특히 바닷가로 여행하기를 좋아한다.

울지 장로는 스물 네 살 때 캘리포니아 트로나에서 지부장단으로 부름을 받은 이래 많은 직책을 맡아 봉사해 왔다. 지부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울지 장로는 교회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모임 장소를 청소했고, 모임의 사회를 보았고, 찬송가를 지휘했으며,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했으며, 주일 학교에서 가르쳤고 교회 모임을 마친 후 다시 모임 장소를 깨끗이 청소했다.

1954년에 캘리포니아 태프트로 이사했을 때 울지 장로는 감독의 직분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는 그 부름에서 십 년 간 봉사했다. 1970년에 울지 가족은 캘리포니아 스톡턴으로 이사했으며, 그곳에서 울지 장로는 고등평의원으로 봉사하다가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했다. 그는 선교부장으로 부름받기 전까지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로 팔년 간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으로 팔년간 봉사했다.

스탠다드 오일에서 판매 사원으로 경력을 쌓기 시작한 울지 장로는 1954년에 배급업자가 되었으며, 1970년에는 독립해서 울지 석유 회사를 설립했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울지 장로를 칠십인으로의 새로운 부름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지칠줄 모르는 타고난 지도자 울지 장로는 선교 사업 분야에서 봉사하기를 좋아한다. "참으로 저는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영감을 느낍니다. 선교 사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도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울지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은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는 천부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까지 그들이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는 것처럼 보람있는 일은 없습니다."

울지 장로와 자매는 그들이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강한 교회 유산을 가지고 있다. 두분 다 어렸을 때 가정에서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교회가 참됨을 알고 있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울지 장로는 말한다.*

새로 부름받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왼쪽부터 제1보좌인 지에꼬 엔 오까자끼 자매, 회장인 엘레인 엘 잭 자매, 제2보좌인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

엘레인 엘 잭 자매는 비회원 친구가 이혼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 친구는 수 주일 동안 집에 꼼짝않고 틀어박혀 있었으므로 잭 자매는 그 친구와 함께 지냈으며, 또한 자주 전화를 해서 누군가 그녀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었다. 후에 잭 자매는 그 친구가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시 일하게 되는 동안 그녀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저는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왜 엘레인이 그토록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의아해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엘레인의 끈기와 인내는 보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 여자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잭 자매의 남편 죠우는 말한다.

엘레인 잭 자매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기심 없는 행동이 그녀에게는 일상적인 것이며 게다가 잭 자매도 자신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저는 다만 사람들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는 매일 제 주변의 선한 사람들의 영향에 감사합니다."라고 잭 자매는 말한다.

그러한 열정은 엘레인이 3월 31일에 지지받은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삼년 간 잭 회장은 본부 청녀 회장단 제 2 보좌로 봉사해 왔다.

"참으로 훌륭한 직책이었습니다. 그 직책을 통해 저는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아디(아데스 지캡, 청녀 회장)가 앞으로 무엇을 계획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그 조직들을 하나로 조화시키고 융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잭 자매는 말한다.

엘레인은 앨버타주 카스톤에서 1928년 3월 26일에 스털링 오 로우와 러비나 앤더슨 로우에게서 태어났다. 축복사였으며 "영적 거인"이셨던 엘레인의 할아버지가 두집 건너에 살았었다. "할아버지는 경전 연구가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저에게 경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들으려하지 않았지만 경전이 할아버지의 생애에 끼친 큰 영향을 실감했습니다."라고 잭 회장은 회상한다.

"복음은 제 생활의 가장 큰 인도력입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이 부분적인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또한 이것이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기쁨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잭 자매는 말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엘레인은 유타 대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이 년 간 공부했다. 엘레인은 대학 일학년 때 의과 대학 졸업반이었던 죠셉 이 잭슨을 만났다. 죠우가 인턴 실습을 위하여 뉴욕으로 갔을 때, 그는 매일 엘레인에게 편지를 썼다. 그들은 앨버타 성전에서 1948년 9월에 결혼했다.

잭 부부는 데이비드, 빌, 에릭과 고든 네 아들과 여섯 명의 손주를 두고 있다. 잭 부부는 뉴욕주 스태튼 아일랜드, 매사추세추 주 보스톤, 알라스카주 마운트 에지쿰브에 살았으며, 지난 삼십 이년 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살았다. 잭 자매 가족은 옥외 운동, 특히 하이킹(잭 자매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군화를 신고 사신다고 농담한다.)과 스키와 골프를 즐긴다. "우리는 모여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잭 회장은 말한다.

잭 회장은 그녀의 새로운 임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보좌들과 함께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 그것이 직업이라면

싫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름이라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라고 하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름들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잭 회장의 제1보좌 시에꼬 니시무라 오까자끼 자매는 하와이 주 호에아 태생이다. 그녀는 1926년 10월 21일에 태어났으며 열 다섯 살에 교회에 들어왔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그녀의 부모, 가네노리와 하쯔꼬 니시무라는 "제가 침례 받을 때 실망했으나 교회가 저에게 주는 선한 영향들을 보면서 제가 교회 회원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라고 오까자끼 자매는 회상한다.

오까자끼 자매는 남편인 에드워드 유끼오 오까자끼를 하와이 대학교 학생 시절에 만났다. 그들은 1949년 6월 18일에 호놀룰루에서 결혼하였다. 열 달 후에 오까자끼 형제는 침례받았다. "저는 말일성도 형제들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에드워드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조금 들었지만 남편은 착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오까자끼 자매는 말한다. 오까자끼 부부는 1951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받았다. 그들은 슬하에 케네스와 로버트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오까자끼 자매는 하와이 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노던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와 콜로라도 주립 대학으로부터 교육 행정학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하와이, 솔트레이크시티와 덴버에서 국민학교에서 교사를 지냈으며, 덴버에 있는 동안 국민학교 교장으로 십 년 간 지냈다.

새로운 부름을 받았을 때 오까자끼 자매는 본부 초등협회 위원회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교회의 모든 보조 조직에서 가르쳤으며, 스테이크 청녀 회장 및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도 봉사했다.

"주님은 저에게 자비로우셨습니다. 주님은 제 생활에 많은 지침과 인도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까자끼자매는 말한다.

잭 자매의 제2보좌인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는 1926년 5월 18일에 유타주 스프링빌에서 지 레이 해일즈와 레슬리 해일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스프링빌 고등학교에서 남편 핼 엠 클라이드를 만났다. 그들은 1947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 후 클라이드 자매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클라이드 형제는 세계 제 이차 대전에 참전했었다. 클라이드 부부는 마이클, 케빈, 그리고 존,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부모님들은 저에게 복음을 훌륭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 생활의 기초로 삼은 것이 제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클라이드 자매는 말한다.

클라이드 자매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역원, 그리고 본부 청녀 위원회 임원으로 봉사해 왔다. 또한 클라이드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위한 자원 봉사와 공황에 관한 특별 연구원으로 일해왔다.

클라이드 자매는 유타주 공소 법원을 위한 지명 위원회에서 일했으며, 일반 재판소와 청소년 재판소 위원장으로, 유타 고등 교육 제도의 이사회에서, 유타 법원의 성 차별 연구 특별 전담반 위원장으로 봉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직책에서 제가 해야 할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저는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과 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다른 어떤 일에서 보다 더욱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클라이드 자매는 말한다. *

새로 부름받은 본부 청녀 회장단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왼쪽부터 : 제인 비 맬런 자매, 본부 청녀 회장인 아데스 지 캡 자매, 재니트 시 해일즈 자매, 지에꼬 엔 오까자끼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레인 엘 잭 자매,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

재니트 시 헤일즈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만약 재니트 시 헤일즈 자매의 생애를 세 단어로 묘사한다면 *도전*, *변화*, 그리고 *헌신*일 것이다. 이 년 전, 가정 주부로만 삼십 삼 년 간 보낸 후 그녀는 유타주 하원 의원이 되었고 본부 초등협회 위원회 임원으로 부름받았다. 이 경험들과 더불어 다섯 자녀를 키운 경험은 그녀가 본부 상호부조회 제2보좌로 새로이 부름받게 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전의 보좌였던 엘레인 엘 잭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의 새로운 직책에서 봉사하도록 이 직에서 해임되었다.

헤일즈 자매는 1933년 7월 7일에 유타주 스프링빌에서 토마스 엘 캘리스터와 한나 캘리스터사이에 태어났으며 유타 주 스페니쉬 포크에서 자라났다. 그녀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의류 직물학을 전공했고, 1955년 6월 29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젊은 의학도인 로버트 에이치 헤일즈와 결혼했다.

헤일즈 형제의 의학 교육을 위해 그 가족은 처음에 솔트레이크 시에서 텍사스 주 산안토니오로, 뉴욕 주 롱아일랜드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마지막으로 유타 주 프로보로 이사를 다녔다. 그러는 동안 헤일즈 자매는 대학을 마치고 많은 지역 사회 단체와 여러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청녀, 초등협회, 그리고 상호부조회 조직에서 봉사했다. 그녀의 남편 또한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단을 포함한 여러 직책에서 봉사했다.

헤일즈 형제는 암 진단을 받은 지 4주 후인 1988년 3월에 세상을 떠났다. "저는 아마도 40년 이상은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과부가 되면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늘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의회에 입후보하기 위해 신청했습니다."라고 헤일즈 자매는 말한다.

헤일즈 자매는 1988년 6월에 하원 의원 지명을 받았고 11월에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녀가 그러한 일을 시작하도록 암시해 준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헤일즈 자매는 "나는 견해와 배경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문제를 풀고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라고 말한다.

헤일즈 자매는 또한 테니스와 집에서 어떤 계획에 몰두하는 것과 친구들과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녀인 앤 헤일즈 네버스, 토마스 씨 헤일즈, 제인 헤일즈 리스크스, 카렌 및 매리 헤일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각별한 기쁨을 맛본다.

헤일즈 자매는 다양한 교회 봉사와 지역 사회 봉사를 통해 "강하고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수 년 전 어느 날 밤 경전을 공부하면서 어떤 의문들을 풀려고 애쓰던 때를 기억한다. "저는 복음이 참으로 진리라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간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것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해주는 동기가 되어 왔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이며 본부 청남 회장인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오른쪽)가 대회 방문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음

데이비드 엠 케네디 형제

대관장단의 특별 대표의 부름에서 해임됨

데이비드 엠 케네디 형제는 3월 31일 교회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대관장단의 특별 대표의 부름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1974년부터 이 직책에서 봉사해 왔다.

그의 보조인 블래인 에이치 튤러 형제도 또한 해임되었다.

올해 여든 다섯인 케네디 형제님은 또한 세상 사회의 임무로부터 풀려나 일의 분량이 줄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국제 외교학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케네디 형제는 지난 십 육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교회 성장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 기쁨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러한 여러 나라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다. 그러나 케네디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홀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대관장단의 특별 대표로 부름받기 전, 케네디 형제는 은행과 정부 직책에서 수 년간 일해 왔다. 그러한 직책에서 그가 쌓은 경험과 우정이 후에 그가 온 세상에 교회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포르투갈에서 한국에 이르기 까지 교회가 법적 승인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거나 교회 기능을 확장하는 허가를 얻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었다.

1974년에 부름을 받기 전, 케네디 형제는 미국 특사로서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일했으며 1972년부터 1973년까지는 나토 대사로 일했다. 그는 1969년부터 1971년까지 리차드 엠 닉슨 대통령 내각에서 재무성 장관을 역임했다.

1946년부터 1968년까지 데이비드 케네디 형제는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과 시카고 신탁 은행에서 일했다. 그는 1959년에 은행장이 되어서 그 은행이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했다.

튤러 형제는 1987년 이후 케네디 형제의 보조로 봉사해 왔다. 외무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블레인 튤러 형제는 에이레로부터 필리핀에 이르는 일곱 개 국가에서 외교 관리 및 영사로 일했다. *

성찬식과 경건

멀린 알 리버트 장로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성찬식은 아마도 우리가 갖는 교회 모임 가운데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모임일 것입니다. 성찬식의 목적은 성찬을 들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이 거룩한 의식을 그가 배반당하여 모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십이사도들과 함께 가진 이 모임에서 구세주는 사도들에게 빵 조각은 그의 몸을 상징하며 포도주는 그가 곧 인류를 위하여 흘리게 될 피의 새로운 성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앞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그에게 나아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 예수님은 스스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속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취함으로써 침례시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매주 함께 모일 것을 이 세대의 우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갖는 동안 구세주를 기억하며 기꺼이 그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의 계명을 따르겠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 성스러운 의식을 거절하고는 "어떠한 교회 회원도 성신의 영감과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교리*, Ⅱ권, 301페이지)

어떤 회원은 성찬이 매주 준비되고 집행되므로 그것이 평범한 일이며,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성찬식은 그 목적이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는데 있으므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찬식에서 복음이 가르쳐져야 하고 연사는 복음의 원리가 참됨을 간증해야 합니다. 연사들은 회원들의 신앙을 증진시켜 주어야 하고 회원들에게 구세주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인간을 구원해 주는 복음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해 줄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성찬식은 여행담을 이야기하거나 음악회를 하거나 성찬식에 합당한 엄숙함을 해치는 어떤 활동 등을 하는 오락 장소가 아닙니다. 성찬식은 인간의 철학을 논의하거나 복음 원리에 대하여 추측해 말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성찬식은 합당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교화되며 "율법과 계명의 요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알게 되어 결국 우리의 생활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가 배운 것을 증거해주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성 43 : 8~10, 50 : 21~22 참조)

교회 회원은 모두 교회에서 집행되는 엄숙하고 성스러운 의식에 합당하도록 모임의 경건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주곡이 연주되는 동안 우리는 각자 조용히 앉아서 모임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은 나머지 목소리를 높여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회원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전주곡이 깊이 명상할 기회를 주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대화에 방해가 될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성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나이나 주위의 상황 때문에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성찬식에 초대하고, 참석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지도자들과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성찬과 성찬식의 성스러운 본질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의 밤은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원리들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의 마음에 그것을 새겨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린이들은 잘 준비된 상태로 교회에 오게 되고, 성찬식이 놀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어린 아이가 울면 성찬식 모임에서 잠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어린 아이의 요구를 들어 주는 데 민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예배당에는 어머니 방이 있거나 성찬식의 과정이 방송되는 장소가 있어서 부모는 어린 아이를 돌보면서도 예배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어린이들에게 경건을 가르치는 데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이들이 소란스럽거나 주의가 산만한 행동을 하면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경고를 줄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앉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꼭 알맞는 교훈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도서 12 : 1)

부모가 자녀에게 회개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다른 기본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때가 지금인 것이 분명합니다. (교성 68 : 19~25, 28 참조)

모세는 호렙산 부근의 광야에서 양 무리를 치는 동안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지시를

그는 예언자를 보았습니다

도나 신 자매

하셨습니다.(출애굽기 3 : 2~5) 광야나 산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진다면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주님에게 헌납된 건물 또한 거룩한 것이 분명합니다.

니파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감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고개 숙여 너희의 정성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를 예배해야 하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행할진대 버림받지 아니하리라."(니파이이서 25 : 29)

혼란하고 소란스러운 모임에서는 온 힘과 정성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시에서 예배의 정신을 잘 나타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찌어다"(시편 29 : 2) 아름다움과 거룩함은 경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성찬식을 감리하는 역원은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증진시키는 성찬식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집행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원들이 조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외적으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저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이 신성한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참여해야 하는지 가르치며 성찬식의 본질과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성한 특권입니다. *

우리가 지역 대회를 위해 원주로 가는 동안 그는 내 옆에 앉아서 단호한 어조로 그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황량한 삼 월의 시골 길을 차로 달리면서 저는 그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눈을 가늘게 뜨고는 자리에서 움찔움찔 움직였습니다. "신 자매님, 저는 별로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별로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는" 그의 종교적인 내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매우 평범한 어린이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집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야기해 달라, 맛있는 것 좀 달라, 게임하자, 재미있는 놀이하자는 등 졸라대며 선교사들을 귀찮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은 귀찮아 하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게 그를 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선교사들을 마냥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선교사들을 따라서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열 두살이 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복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그는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의 따뜻함과 사랑에 찬 태도로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열 네살이 되었을 때 한국 대회가 열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교회의 대관장이자 예언자이신 킴볼 대관장님이 미국에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역사적인 영적 제전에 참석할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위해 비회원인 부모님을 끊임없이 졸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진해에서 서울까지 일곱 시간씩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 것 때문에 다소 회의적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언자를 직접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막무가내로 부모님을 졸라 대었습니다. 고맙게도 마침내 그의 부모님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는 예언자의 위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회장 뒤편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지상에서 그가 존경하는 가장 훌륭한 예언자를 멀리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셨는데도 그분과 멀리 떨어져 앉게 되어 그는 다소 실망했습니다. 이 천진난만한 신앙을 지닌 소년은 머리를 숙이고 언젠가는 예언자와 총관리 역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대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여행 길에 올랐습니다.

추풍령에서 버스가 평상시대로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깡총 뛰어나와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주차장에서 그는 "가족은 영원하다."라고 쓰인 스티커가 유리에 붙은 커다란 미국 차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이스크림 콘을 뚝뚝 흘리면서 미국인 몰몬들을 찾기 위해 짧은 휴식 시간에 상당히 큰 휴게소를 찾아 헤매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전날 그가 드린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일 년 후가 아닌 바로 지금 말입니다! 저기 휴게실 건너편에 예언자가 서 계셨습니다. 그는 많은 선교사들과 가졌던 긍정적인 경험들로부터 얻은 자신감으로 가득 찬 채 급히 휴게실 건너편으로 가서 손을 내밀면서 간단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김 대윤입니다. 저는 몰몬입니다."

사람들을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위대하신 그분은 그의 끈적끈적한 손을

열렬히 잡으시면서 그를 테이블에 앉히셨습니다. 예언자는 손수건을 꺼내어 아이스크림 투성이가 된 소년의 얼굴을 웃으시면서 닦아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몰몬이시냐?" 예언자가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소년은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분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부모님을 개종시킬 수 있지. 김 형제는 어디에서 왔지?"

"진해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일곱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회에 참석하고 막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온 너의 헌신이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와서 나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나의 아내와 다른 총관리 역원들을 만나보아라." 그리고 예언자는 이 소년이 마치 어떤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부인과 총관리 역원에게 소년을 소개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가 타고 온 버스가 벌써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형제는 작별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예언자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형제, 교회는 한국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자네를 필요로 하네.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겠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는 열의에 찬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예언자는 이 특별한 소년을 꼭 껴안고 "훌륭하군! 훌륭해! 훌륭해!"라고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순수한 사랑이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 소년은 계단을 뛰어 내려 가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후 몇 년이 지나 그는 대학 입학 시험 준비로 공부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있으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훌륭하군! 훌륭해! 훌륭해!"라고 하신 예언자님의 속삭임이 그의 귀와 마음에 울려 왔습니다. 그는 진정 예언자께서 인정해 주신 영광스러운 그 높은 수준에 합당하지 않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오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실하게 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한 번은 서울 대학교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나 휴교하게 되었습니다. 김 형제는 학교가 쉬는 동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는 달랐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온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이 놀기 좋아하는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 그에게 술을 마시라며 큰 어려움을 겪게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옛 동창에게 다가와서 한 첫 마디는 "너는 대학생이 된 지금도 줄곧 교회에 다니고 있니?"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김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닐 작정이야."

"나는 이해할수가 없어, 그렇게 많은 제약과 속박 받으면서 어떻게 재미를 찾을 수 있겠니? 나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자유로와지고 싶어!"라며 그 친구는 나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른바 제약이라고 네가 말하는 우리 교회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없이도 나는 참으로 기쁨을 갖는단다. 바로 그러한 규율들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게 해 주는 그러한 진정한 관계를 갖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 준단다." 옛날에 한 반 친구였던 그들은 한동안 논쟁을 하다가 곧 대화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점심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친구와 헤어져 곧 집으로 돌아온 김 형제는 그들이 만났을 때 친구가 교회를 생각했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심 시간에 만나 그는 시험적으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네가 우리 교회 선교사를 만나면 재미있을지도 몰라.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흥미로운 점이 있어. 그들은 우리 교회의 믿음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좋아 한단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좀 다르단다. 네가 전에는 하지 못한 그런 것이야."

놀랍게도 그 친구는 "좋아!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좋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거칠은" 친구는 선교사와 공부할 때마다 눈에 띄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는 "참마음 참뜻을 가지고" 기도했으며 몰몬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번째 토론을 마치고 그는 매우 기뻐했으며 그의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 그와 그의 세 누이와 아버지가 침례받았습니다. 침례받은 지 일 년 조금 지나서, 김 형제가 아직 선교사 부름을 받기도 전에 그는 대전 선교부에서 봉사했고 또한 그곳에서 선교부장 보조로도 봉사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지금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그에게 질문하면서 이 훌륭한 한국 청년이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대학교 동창 일곱 명을 선교사에게 소개해서 그들을 개종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형제는 한국 서울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특별한 날에 또한 그는 백 진현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자매의 영적인 힘과 우아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곧 그들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께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그는 비밀을 털어 놓았습니다. 백 자매는 이미 선교 사업을 한 번 마쳤지만 그들은

얼음 속의 침례

웨이드 브래큰버리 장로
(한국 서울 선교부 지역 책임자)

둘이 다 선교 사업을 하고 귀환한 후에 결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는 200명을 침례 줄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실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의 침례 숫자 기록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형제 만큼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실망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선교부장 보조로서 선교부 사무실에서 봉사하면서 벌써 선교사 기간의 거의 반인 십 일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위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작은 행위"가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

우리는 두 달 전에 자매 선교사들과 함께 가두 전시회에서 박 향국 자매를 만났습니다. 곧 그녀는 복음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송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인 브라이스 워맥 형제는 김 혜국 자매를 자매 선교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 혜국 자매는 미군 부대에 있는 영어 회화반에서 워맥 형제의 아내 방 주은 자매와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준비일에 김 혜국 자매가 일하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김 혜국 자매가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끈기있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참으로 그녀는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돌보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두 구도자들은 복음 토론을 마치고 강한 간증을 갖게 되어 1월 24일 일요일에 침례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관리인과 감독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요일 아침 개회 순서를 마친 후에 나는 더운 물이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지 관리인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침례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혜국 자매의 친구들이 침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송탄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구도자 두 명과 오산 지부에서 온 세 명의 구도자가 침례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오산 지부 회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자매 선교사인 구 진자 자매와 저는 보일러를 분해하여, 진공 퓨우즈가 타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쓸 수 있는 자동 퓨우즈로 대치했습니다. 그다음 보일러를 다시 조립하였습니다.

처음에 보일러가 잘 작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운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흥분은 곧 사라졌습니다. 보일러에서 침례탕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물을 안 썼기 때문에 수도관 속의 물이 얼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도관을 녹이려고 세 시간 동안 수도관에 끓는 물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용접공을 찾았으나 아무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두 시가 되었습니다. 오산 지부장과 회원들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구 진자 자매 선교사는 수원에 있는 모든 목욕탕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침례를 할 수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의 편의를 도모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김 자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녀 또한 실망했습니다. 김 자매는 자신이 기도해 왔으므로 침례 받게 될 것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날 침례 받기로 자매 선교사들과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김 자매는 토론을 시작할 때 선교사들이 준 몰몬경을 꺼내서 앨마가 몰몬의 샘에서 소녀에게 침례를 주는 그림을 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강이나 호수에서 침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강과 호수가 모두 얼어버렸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불가능하다는 말이 여기 저기서 튀어 나왔습니다. 감독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를 감독실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자매들이 언제 어디서 침례 받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감독은 호수가 있는 곳을 아는데 버스를 타고 한참 간 후 좁은 길을 20분이나 걸어가야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실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두 구도자 중 나이가 많은 김 자매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날 침례 받는 것에 동의했다는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김 자매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임무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만일 그녀의 임무가 호수에서 침례 받는 것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호수에서 침례를 베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비스 장로와 마이너 장로는 집으로 달려가서 담요를 가져 왔습니다. 두 구도자와 파커 장로와 나는 침례복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침례식 개회를 한 후 호수로 가는 시외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얼음이 매우 두껍게 얼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호숫가를 반 쯤 걸어가서 감독이 전에 트럭으로 가 보았던 곳을 찾았습니다. 감독은 커다란 돌로 얼음을 깨뜨려 보려고 해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나의 동반자와 나는 호숫가에 있는 작은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줏빛 한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한국말로 얼음을 깨뜨려 구멍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집에서 만든 나무 자루가 달린 낡은 도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도끼를 돌려 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웃으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호수로 돌아와서 작은 구멍을 내어 호수의 깊이를 나무 막대기로 재어 보았습니다. 침례를 베풀기에는 너무 얕았습니다. 우리는 얼음을 잘라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어 깊이를 재어 보았습니다. 마침내 깊이가 적당한 곳을 찾았습니다.

침례를 베풀기에 충분하도록 얼음을 깨뜨리느라고 또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끼 자루가 부러졌으나 도끼 머리가 가라 앉기 전에 붙잡았습니다. 얼음의 두께가 30센티미터나 되었습니다. 잘라 낸 얼음 조각이 너무나 커서 건져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음 구멍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침내 얼음으로 뒤덮인 호수에서 내가 김 자매에게 침례를 주었고 파커 장로가 박 자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던 사람들은 다 집에 가버린 후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날씨는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데, 얼음 구멍으로부터 얼음 위로 올라 왔을 때 놀랍게도 나는 전혀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김 자매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폐회 기도를 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담요를 두르고 버스 정류소로 향했습니다. 침례받은 자매들은 옷을 갈아 입기 위해 감독님 집으로 갔고 다른 장로들과 나는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8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감독님 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감독님은 이 두 자매들이 바로 여기서 안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의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는 동안, 또 안수 기도가 끝난 후 그 방은 감미로운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 느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에서 그 두 자매들이 그 날 침례받고 안수 받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나는 그 일이 있은 지 닷새 후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수원 와드의 침례당 수도관은 아직도 얼은 채로 있습니다. 내일 김 자매는 남동생을 우리에게 소개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첫번째 토론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나는 그 계획으로 흥분돼 있습니다! (수원 와드의 젊은 감독은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못 되어 교통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성전 추천서 발급을 위한 접견을 하기 위해 교회로 가는 도중 큰 트럭이 신호 등 앞에 서 있는 그를 치어버린 것입니다.)*

회원의 모범

히로조 이찌까와 자매

저는 "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는가?"에 대하여 간단한 말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녀들을 위해 어떤 특별한 종교 교육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저의 자녀들을 매주 교회에 데려가고, 매 식사때와 매일 밤 가족 기도를 하고, 가능한 한 자주 성경과 몰몬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 줄 뿐입니다. 저의 큰 아들은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는 저에게 항상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을 해주려 합니다. 그는 매우 총명한 소년이어서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복음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듣기를 좋아 합니다.

그는 어린이를 위한 몰몬경 이야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며 그밖의 영어나 일본어로 쓰여진 교회의 책자들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또한 성구 찾기 게임을 즐겨 합니다.

자녀들이 다투거나 싸우기 시작할 때엔 저는 때때로 그들을 탁자에 나란히 앉히고 잠시 동안 경전(대부분이 어린이 책)을 읽게 하거나 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줍니다.

이것이 저의 가족과 제가 행하고 믿는 것입니다.*

경전 공부

최 수영 스테이크 부장
청주 스테이크

고등학교 시절 저는 인생과 학문의 목적에 대하여 깊이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얻으려고 성경은 포함하여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이 제 의문에 대하여 약간의 도움이 되기는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제가 따르기엔 너무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를 만나 구원의 계획에 관한 소책자를 받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소책자로부터 인생과 학문의 목적에 관해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점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는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소책자를 읽은 후 저는 때로는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경전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197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내와 저는 경전을 함께 읽었습니다. 점차 저희는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1982년 프로보에 살고 있을 당시 저는 한 인디안 가정의 가정 복음 교사였는데 그 가정은 다섯 자녀와 매일 가족이 함께 몰몬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인디안 형제님이 다섯 자녀들과 함께 몰몬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는 네 자녀와 함께 몰몬경을 읽을 수 없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저의 가족은 그 인디안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매일 아침 몰몬경을 함께 읽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웃의 모범은 제가 매우 존경하는 킴볼 대관장님의 권고보다도 훨씬 더 강한 영향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장녀인 은경이가 매일 거실 청소를 마치고 일지를 쓴 다음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딸이 훌륭한 초등협회 교사님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일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86년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매일 함께 몰몬경을 읽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자리에 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만 모이면 언제든지 경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매일 저녁 일지를 쓴 후 성경과 기타 경전을 읽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딸아이는 자신의 13번째 생일인 1988년 5월 24일이 되기 전에 모든 경전을 다 읽었습니다.

1988년 12월의 어느 날, 열 살 밖에 안된 세째 아들 경훈이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나가 한 것처럼 저도 경전을 읽어야 하나요?" 경전들, 특히 구약은 그가 이해하기에 어려울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경훈이를 격려하여 시도해 보도록 권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경전을 이해하는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훈이가 영어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생일인 1989년 4월 19일까지 영어로 쓰여진 표준 경전 네 권을 모두 읽도록 과제를 주었습니다. 경훈이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으며 생일 이틀 전에 그 일을 마쳤습니다. 경훈이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때때로 같은 반 친구들이 찾아오면 계획을 세워 놓은 분량을(하루 35페이지) 다 읽을 때까지 혼자 놀던가 기다리게 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아버지로서, 저는 어떻게 자녀들이 침례를 받도록 준비시켜서 이를 행치 않았을 때의 죄가 "부모의 머리에"(교성 68 : 25) 머물지 않게 할 수 있을까"하고 자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어린이를 위해 교회에서 테이프와 함께 발행한 그림으로 된 경전 이야기를 구입해서 자녀들에게 침례받기 전에 그것을 모두 읽도록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크게 성공을 거두었으며, 저는 자녀들에게 침례를 위해 가르쳐야 하는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림으로 된 경전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으며, 경훈은 그가 경전을 읽을 때 등장 인물들과 장면들을 그려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책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경훈이가 그 일을 성취한 후, 제가 딸에게 어째서 매일 경전을 읽어 열 세살이 될 때까지 다 읽게 되었냐고 질문하자 은경은 "우리 가족이 매일 몰몬경을 읽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3년 동안 은경이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훌륭하신 초등협회 교사의 영향을 받아 혼자서 경전을 읽어왔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의 대답은 제가 가족과 함께 몰몬경을 읽기 위해 들인 노력을 충분히 보상해주었습니다. 저는 종종 가족이 함께 몰몬경을 읽으라고 하신 벤슨 대관장님의 권고를 따르기 위한 저의 노력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의 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있으며 경훈이의 형인 성훈 또한 집사가 된 이후로 세미나리에 줄곧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훈이는 그 후로도 경전을 계속 읽고 있으며, 열 두 살이 되는 1990년 4월 19일까지 표준 경전 네 권을 영어와 한국어로 모두 읽기를 원합니다. 저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가족의 영향이 교회에서 행하는 다른 어느 활동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에 대한 영문 보고서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 연구 보고서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1986년 4월 연차 대회 직후에 저는 대회에 참석했던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한국인 지부를 방문했었습니다. 한국인 지부를 관리하는 스테이크 부장님은 벤슨 대관장님이 몰몬경을 읽으라고 강조하신 다음 날에 몰몬경을 읽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언자의 말씀에 그처럼 신속히 순종하는 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태도는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른 아침 아들을 데리고 떠나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매달 가정을 가르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었습니다. 저는 당시 구약 전서를 공부하고 있었으며, 학생 교재에서 해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13년간 미국에서 머문 후 1986년 9월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하자 곧 저는 감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소중히 하라는 예언자 의 권고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 그 "중요한 책"을 탐구하고 와드 회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겨울 방학 동안(12월 15일~2월 28일) 그 책을 끝까지 읽기 위해 일주일에 두번씩 모였습니다. 이 특별 프로그램에 약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탐구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하는데에 거의 방학 기간 전부를 보냈습니다. 영어 교육 분야의 교수로서 대학을 위한 현실적인 연구를 하지 않은 것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학내에서 영어로 된 자료를 연구하고 읽었다는 것으로 자신을 합리화 하였습니다.

1987년 7월 저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고 1989년 말경까지 스테이크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989년초 다음과 같은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열 한가지 항목의 스테이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 : 33 ; 니파이삼서 13 : 33) 저는 대부분의 방학을 교회일로 보냈는데 1989년 여름 방학(6월 20일~8월 30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저는 신학 연구원 학생 교재를 가지고 교리와 성약을 연구하여, 역시 매주 두번씩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교수로서 세상적인 연구를 하지 못한 것에 걱정이 되었고 대학 당국이 저를 무능한 교수로 간주해서 쫓아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해 말 무렵 저는 제 상황을 평가하고 세상적인 학문, 특히 제 전공 분야인 교육 공학에 더욱 정진하기 위해 "연구와 신앙으로" 제 시간을 균형있게 사용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89년 말경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과학 재단(Korean Science Foundation)에서는 중학교 영어를 위해 컴퓨터 기초 교육(CBE)을 개발하고자 컴퓨터에 경험이 있는 영어과 교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서울 대학교에 있는 한 저명한 교수를 선정했으나 그 개발 계획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개발 계획의 예산과 규모는 보통 인문 분야의 계획보다 10배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제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계획을 수행하도록 저를 인도했습니다. 이 계획에 앞서 저는 문교부의 도움으로 브리감 영 대학교에 계신 저의 지도 교수께서 지으신 훌륭한 책을 번역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더우기 대학에서는 저희 대학원생들이 쓰고 있는 방 맞은 편에 아홉대의 퍼스널 컴퓨터를 막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컴퓨터 교육을 포함하여 시청각 교육을 시찰하기 위하여 학교 보조금으로 일본 방문까지 했습니다.

일본 방문을 떠나기 직전 저는 형님을 방문하여 그 컴퓨터 계획과 일본 여행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은 제가 그 중요한 계획을 수행하도록 한국 과학 재단이 저를 신뢰한 것에 감격하셨습니다.

1990년 1월 6일 스테이크 특별 모임에서 저는 교회 일과 세상적인 연구, 스테이크 목표 달성 및 주님과의 약속을 균형있게 수행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스테이크 주제와 함께 1990년도 스테이크 목표를 전년도와 비슷하게 설정했습니다 : "그날에 시온을 세우려 힘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니파이일서 13 : 37)

결론적으로, 세상적인 의미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열 배나 더 큰 계획 및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를 받아들인 이후 또 다른 투쟁을 해 왔습니다.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남을 축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갈등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 저희 스테이크 소속의 한 와드에서 이 계획과 주님의 약속의 성취에 관해 말씀하는 도중 제임에서 나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지 돈을 구할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도 그의 모범을 따라 남에게 축복을 주고 아버지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 그 사업 자금과 기회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제 저는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 계획으로 인해 주어진 기회를 1990년도 저희 스테이크의 새로운 목표인 시온의 건설을 위하여 쓰기로 결론지었습니다. *

회원 선교 사업

마거리트 스미스 자매

그 구도자가 침례 양식에 서명할 때, 류 장로는 이 젊은이가 홍콩에서 유명한 사람이므로 자필 싸인을 요청하며 종이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존슨 장로와 폴슨 장로는 가정의 밤을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며, 구도자가 될만한 사람이 참석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갖고있는 회원 소개 카드들을 샅샅이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 중 한 명에게 전화하여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바로 가정의 밤에 참석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식사 준비 중이라고 대답했으나 이내 "물론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 사람은 7시 30분까지 도착하기 위하여 오븐을 끄고 요리하던 음식을 남겨둔 채 와주었습니다. 이 가정의 밤은 한 회원의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은 "영원한 가족" 슬라이드 필름을 보여 주었는데, 그 때 구도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의 결론으로 샤틴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황 자매님이 매우 강하고 진지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 구도자는 "여러분들과 만난 지 겨우 한 시간 밖에 안됐는데도 이곳에 있으니까 편안한 느낌이 드는군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조셉 호스킨 장로와 시드니 몰슨 장로가 처음 세번째 복음 토론을 가르쳤을 때 그들은 이 젊은이가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개를 해준 회원은 대만에 있는 한 친구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복음 토론 하는 도중에 대만으로 가 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호스킨 장로와 뉴월 장로와 함께 가진 나머지 복음 토론에는 회원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홍콩으로 돌아온 그는 일어난 일들에 관해 생각해 보았고 장로들이 그에게 권한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회원인 그의 여자 친구는 비자를 받는데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의 침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1988년 올림픽에서 홍콩을 대표한 올림픽 펜싱 선수 장계산 형제는 호스킨 장로에 의해 침례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와드에서 매우 활동적인 제사입니다.*

회원 간증

쥴리 제라오카 자매

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말레이지아계 중국인으로 두 딸(8세, 6세)을 둔 어머니입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아닌 일본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매우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고 사랑이 풍부합니다.

제 이름은 쥴리 제라오카입니다. 두달 전에 저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일본인인 와드의 자매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큰 도전입니다. 저는 일본말을 알아듣기는 하지만 일본 글을 쓰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만큼 일본어를 잘 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주께서 저에게 오사카 히라카타 와드에서 일본인 자매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우정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비록 제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우리가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평소에 저는 모든 자매들에게 많은 임무를 드립니다. 저는 모든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친절하며 그들의 과업을 서로 협조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1989년 11월 동경 성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저는 밤에(동경 성전에 있는 기숙사에 머무르는 동안) 모든 자매들이 저를 너무 잘 도와주고 그들의 격려와 주님의 영의 도움으로 제가 히라카타 와드 자매들에게 훌륭한 상호부조회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제가 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강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남편이 교회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도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복음을 속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영어 회화반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에 관해 항상 이야기 합니다.

삼년 전에 제가 몰몬경을 주었던 학생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그녀는 몰몬경을 전혀 읽지 않았었습니다. 그녀는 몰몬경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몰몬경을 그녀에게 주었노라고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날부터 그녀는 몰몬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선교사들과 복음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몇달 후에 침례를 받고 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그녀 때문에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 자매가 침례받기 전부터 저는 그녀가 결국 교회에 들어오리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아주 작은 선교 사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항상 저를 축복하시며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친구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서로 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아주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제 신앙이 날로 발전할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도 남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의 양을 먹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모사이아서 18 : 8~10; 요한복음 21 : 17; 교리와 성약 112 : 14)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상호부조회 회장님들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과 사랑이 담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

새로운 역원 임명

1990년 3월부터 5월까지 관리 본부 회원 통계 기록과에 알려진 역원 변경(존칭 생략)

- 북 스테이크
  신임 부장 이 준택(전임자 : 서 원)
- 북 스테이크 금촌 지부
  신임 지부장 정 영
  (전임자 : 김 조수)
- 서 스테이크 안양 와드
  신임 감독 서 정희
  (전임자 : 김 승범)
- 서 스테이크 반월 지부
  신임 지부장 김 오철
  (전임자 : 유 승구)
- 서 스테이크 신풍 와드
  신임 지부장 허 충석
  (전임자 : 지 헌재)
-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신임 감독 이 재기
  (전임자 : 최 재춘)
- 강서 스테이크 영등포 지부
  신임 지부장 김 중영
  (전임자 : 김 기호)
- 인천 스테이크 농아 지부
  신임 지부장 한 석순
  (전임자 : 이 순호)
- 대구 스테이크 포항 지부
  신임 지부장 정 외곤
  (전임자 : 허 정도)
- 대구 스테이크 경주 지부
  신임 지부장 박 장규
  (전임자 : 이 승후)
- 대구 스테이크 안동 지부
  신임 지부장 황 승호
  (전임자 : 김 봉수)
-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
  신임 감독 김 영중
  (전임자 : 박 동규)
- 청주 스테이크 예성 지부
  신임 지부장 배 상기
  (전임자 : 황 현욱)
- 청주 스테이크 금산 지부
  신임 지부장 송 정훈
  (전임자 : 조 덕환)
- 강릉 지방부 주문진 지부
  신임 지부장 김 형훈
  (전임자 : 김 주현)
- 부산 선교부 서귀포 지부
  신임 지부장 이 창훈
  (전임자 : 김 병창)

천안 지방부 전반기 대회

1990년도 전반기 천안 지방부 대회가 5월 12, 13일 양일간에 걸쳐 로스 에이치 콜 대전 선교부장의 감리하에 개최되었다.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라"(교성 15 : 6)를 주제로 하여, 이웃에 대한 마음의 벽과 복음을 전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전한 사랑을 갖도록 힘써 스테이크를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가 제시되었고, 콜 선교부장은 이 대회의 많은 회원들의 참석과 성도들의 뜨거운 영을 치하하고, "신앙의 눈"(이더 12 : 19)은 실체를 보며,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됨을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 황 충열 형제가 대전 선교부장단 보좌로, 김 구환 형제가 지방부장단 보좌로 지지받았으며, 3명의 장로가 탄생되었다.

이 대회를 위해 각 지부에서는 이 지역 비회원을 위한 특별 금식 기도회를 가졌다. *

기사 제공 : 이 정은 지방부장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116기 수료

(1990. 5. 14~25)

좌로부터 홍 찬영 장로, 박 종욱 장로, 김 성민 장로, 오 귀진 장로, 정 영신 장로, 김 병창 장로, 김 영일 장로, 고 현직 장로, 김 정기 장로, 최 양국 장로, 김 도영 장로, 안 태훈 장로, 허 정 자매, 이 정아 자매, 강 명숙 자매, 문 근혜 자매, 강 명옥 자매, 김 은경 자매, 배 미숙 자매, 양 정애 자매, 한 윤숙 자매, 조 선희 자매

서울 선교부

김 도영 장로(광주 충장 와드)
한 윤숙 자매(청주 논산 지부)
양 정애 자매(서울 서 봉천 와드)
강 명옥 자매(원주 태백 지부)
조 선희 자매(원주 영월 지부)

서울 서 선교부

김 병창 장로(부산 선교부 서귀포 지부)
안 태훈 장로(광주 충장 와드)
정 영신 장로(부산 서 마산 와드)
김 영일 장로(부산 서 김해 지부)
김 은경 자매(전주 군산 와드)
배 미숙 자매(원주 영월 지부)

부산 선교부

박 종욱 장로(원주 태백 지부)
최 양국 장로(광주 충장 와드)
김 정기 장로(광주 충장 와드)
고 현직 장로(원주 태백 지부)
이 정아 자매(북 충정 와드)
강 명숙 자매(광주 충장 와드)
허 정 자매(영동 성남 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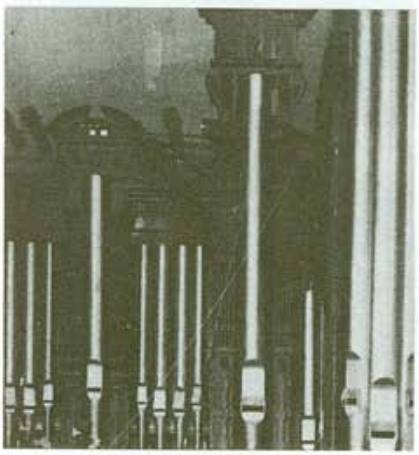
대전 선교부

김 성민 장로(강릉 동해 지부)
오 귀진 장로(강릉 동해 지부)
홍 찬영 장로(부산 광안 와드)
문 근혜 자매(동대문 이문 지부)

태버내클 합창단 1991년 유럽 및 소련 순회 공연

대관장단은 1979년 한국에서 공연한 바있는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이 1991년에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및 유럽 아홉 개 도시에서 역사적인 순회 공연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6월 1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첫 공연을 시작하여 열세 차례의 공연을 가질 예정인데 마지막 세 번은 소련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합창단이 모스크바 및 레닌그라드에서 공연하기 위한 교섭은 최근까지 미국 주재 소련 대사를 역임했으며 금년 4월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한 유리 브이 두비닌 대사가 소련을 대표하여 진행했다.

합창단은 1991년 6월 24~25일 모스크바의 크레믈린에서 공연할 것이며 6월 27일에는 레닌그라드에서 공연할 것이다. 그 외의 공연은 독일,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및 폴란드에서 개최될 것이다.

태버내클 합창단은 한국 이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스웨덴, 스위스 및 웨일즈에서 순회 공연을 했다.*